



단속 10분만에 “빼빅”... 음주운전 잇따라 적발

제주경찰청, 지난 13일 휴가철 음주단속 실시
제주시 9명·서귀포시 3명 적발... 무면허도 3명

“음주 감지됐습니다. 이동해서 잠깐 내려주세요.”

지난 13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연동의 왕복 6차선 도로 위.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된 지 10여 분만에 오토바이를 몰던 6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확인됐다. 면허정지 수준이다. A씨는 인근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맥주 3잔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털어놨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제주시(2개소)와 서귀포시(1개소)에서 휴가철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는 교통경찰 24명과 제주자치경찰단 8명 등이 투입됐다.

저녁 시간대 차량행렬이 이어지면서 영업용 버스와 택시 등도 단속 대상이 됐다. 간혹 차량 와이퍼 워셔액 사용으로 차량 내부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와 오감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잠시 후 8시 40분쯤에는 배달 오토바이로 주행하던 40대 남성 B씨에게서 음주가 감지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B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B씨는 잠시 멈춰섰다.

확인 결과 B씨는 얼마 전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이날 술 한잔을 마시고 배달에 나서는 길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01%로 혼방 조치됐으나 무면허가 드러나 오토바이는 두고 이동해야 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다.

경찰이 이날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12건(제주시 9건, 서귀포시 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면허취소 수준 6건, 정지 수준 6건 등이다. 또 무면허 3건이 함께 단속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23년 2680건, 2024년 2531건, 2025년 2748건 등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3년 304건(사망 2·부상 476명), 2024년 225건(사망 4·부상 351명), 2025년 203건(사망 2·부상 296명) 발생했다.

김승환 제주경찰청 교통계장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 13일 밤 제주시 연동지역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중국인 성매매 알선 사건 철저한 수사를”

도내 3개 여성단체 14일 철저 수사 촉구 공동성명
“개별 범죄 아닌 조직적 성매매 카르텔 가능성 커”

제주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중국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제주 여성단체들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험의회 등 도내 3개 단체는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어 사이트를 통

해 중국인 관광객 등을 겨냥한 성매매 알선 조직 적발과 드립타워 주변 성매매 의혹 등 최근 드러난 제주지역 성매매 알선 사건들은 개별 범죄가 아니라 온라인 광고와 관광·숙박시설, 카지노 등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 성매매 알선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

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경찰이 적발한 성매매 알선 조직 사건에 대해선 “해외 도피 피의자가 예약을 받고 제주에 있는 여성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영입이 계속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경찰은 총책과 공범, 자금 흐름 등을 끝까지 추적해 성매매 알선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장기간 중지된 수사 재개와 함께 성착취 피해 여

성을 보호·지원하고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행정조치와 수사로 연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알선책 중국인 조직원 3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3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 후 한국과 중국 국적의 다수 여성들의 프로필을 게시하고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코스별 11만~5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폭염주의보 속 열사병 환자 잇따라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 제주에서 열사병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7분쯤 제주시 도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시간가량 야외 작업을 하며 열사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지난 12일 낮 12시45분쯤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90대 여성 B씨가 열사병으로 쓰러졌다. B씨는 집 앞 마당에서 일일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쿨팩과 생리식염수 등으로 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양유리기자

가파도 응급환자 의약품 드론으로 배송

13일 복용 의약품 떨어진 60대 관광객에 전달

기상악화로 발이 묶인 가파도에서 환자가 발생하자 드론이 긴급 의약품을 이송하며 제주 본섬과 가파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7분쯤 부속도서인 가파도의 한 민박에서 60대 여성 관광객 A씨가 평소 복용하던 필수 의약품이 고갈됐으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은 헬기와 함정 등 가용 응급 이송 수단의 운항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기상 여건 탓에 모두 불가능했다.

상황실은 가파 전문의용소방대에 연락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영상통화로 응급처치를 지도했다. 환자의 혈압과 당도를 확인한 결과 기력 저하가 나타나자, 의료기관과 협력해 긴급 의약품을 확보한 뒤 제주도에 드론 배송을 요청했다.

당시 가파도 현지는 약 초속 10m의 돌풍이 불었고 정기 배송일이

아니어서 드론 운용 인력도 없는 상태였다. 제주도는 드론 컨소시엄에 긴급 배송 가능 여부를 요청하는 동시에 베테랑 조종전문관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강한 바람이 부는 악조건 속에서도 드론은 가파도에 무사히 착륙해 대기하던 가파 전문의용소방대원에게 의약품을 안전하게 전달했다.

제주도는 올해 4월부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옥상에 드론 착륙장을 마련하고 가파보건진료소를 잇는 항로에서 의료소모품 전달과 폐의약품 수거 등 훈련과 배송을 반복해 왔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드론 배송은 배와 헬기가 모두 끊긴 이번 상황에서는 환자에게 약을 전달 사실상 유일한 통로였다”며 “재난과 의료 위기 상황에서 드론이 시간을 다투는 이송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도교육청 추경안, 학교 출입 안전 예산 빠져”

제주교사노조 14일 논평 통해
출입통제 설비 예산 반영 촉구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제주도교육청이 1조6925억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안과 관련해 학교 출입 안전을 강화할 예산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제주교사노조는 14일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안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6억원이 반영됐으나, 정작 제주 학교 현장

이 반복적으로 겪어 온 ‘외부인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한 학교 출입구 보안 취약점 진단과 출입 통제 개선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제주교사노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의 회복 지원과 침해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예산을 편성하라”며 전 학교를 대상으로 출입구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출입 통제 설비를 확충하는 예산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 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 실시 완료업체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쿨고리

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